

일본 구마모토 강진 41명 사망... 피해 확산

에카도르 7.8 강진 41명 사망...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잇단 발생



17일 오후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미나미아소무라(南阿蘇村)에서 경찰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일대에는 최근 이어진 강진으로 산사태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연쇄 강진에 이어 일본과 함께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남미 에카도르에서도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41명이 사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16일(현지 시간) 오후 6시58분께 에카도르 로사자라테에서 서쪽으로 52km, 수도 키토에서는 북서쪽으로 170km 떨어진 태평양 해안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USGS는 애초 이 지진의 규모를 7.4로 발표했다가 나중에 7.8로 상향 조정했다. 진원의 깊이는 19.2km로 관측됐다고 USGS는 설명했다.

호르헤 글라스 에카도르 부통령은 이 지진으로 최소 4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글라스 부통령은 이날 TV로 방송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사망자가 제2 도시인 과야킬과 중서부의 만다, 포르토 비에호 등지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진으로 건물과 도로, 공항 관제탑이 무너졌다는 보고도 잇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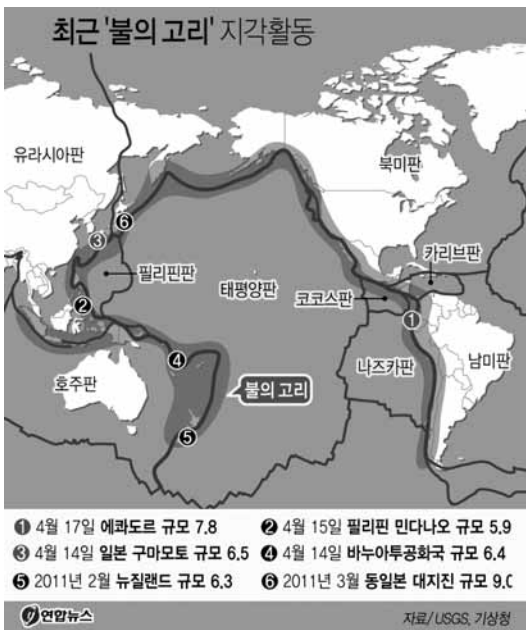
AP는 이 지진으로 수도 키토에서는 약 40초 동안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강한 진동이 감지됐으며 많은 시민이 공포에 질려 건물 밖 도로로 뛰쳐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현지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피해 상황 사진 등을 토대로 에카도르 중서부 해안에 있는 과야킬에서 최소 주택 1채와 고가도로 1곳이 붕괴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이어진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1명으로 늘어나는 등 2011년 대 지진 후 일본 내 최악의 지진 재해로 전개되고 있다.

17일 구마모토현 등 현지 당국에 따르면 16일까지 41명이 사망했다. 14일 오후 9시 26분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6.5, 최대진도 7의 지진이 발생한 후 다음 날까지 사망자 9명이 확인됐고, 16일 오전 1시 25분 규모 7.3의 강진이 재차 발생해 사망자가 급증했다. 이번 지진 때문에 중상자 약 180명을 포함해 1천 명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다.

규모 6.5 지진 발생 후 16일 오후까지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287차례, 진도 4 이상의 지진이 62차례 발생하는 등 여진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백두산 천지 아래 '서울시 2배' 마그마 존재

북·미 등 국제공동연구진 밝혀

백두산 천지 5~10km 아래에 부분적 용융상태의 마그마가 있으며 그 면적이 서울시의 2배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백두산 주변 지역의 지진과 화산 폭발 가능성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영국, 중국, 미국 과학자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진은 15일(미국 동부시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서 백두산 천지 인근 60km 안에 광대역 지진계를 설치, 지진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두산 지하에 부분적 용융상태인 마그마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북한 과학자들이 서방 연구진과 백두산 관련 공동연구를 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UCL) 제임스 해먼드 교수

가 교신저자로 참여했고 북한에서는 지진부와 평양 신기술경제 국제정보센터 과학자 7명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백두산 천지 5~10km 아래에 부분적 용융상태의 마그마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이 마그마 지대가 2002~2005년 백두산 일대에서 발생한 빈번한 지진 등 불안정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마그마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천지 주변 지역 면적은 1천256km²로 서울시(605km²)의 2배가 넘는다.

화산 지대 아래에 용융상태 암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화산활동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백두산은 고려 정종 때인 서기 946년과 947년 두차례 대규모 폭발을 일으킨 뒤 휴지기 상태지만 2002~2005년 지진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활동 재개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환태평양 잇단 강진... '불의 고리' 심상찮다

지질학자 "난카이 해구 9.1 강진·간토 대지진 재현 우려"

일본 구마모토(熊本) 현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다 른 환태평양 조산대 인접국인 남미 에카도르에서도 강진이 일어나면서 '도미노 강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1년에도 환태평양 조산대 내에서 먼저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 난 뒤에 동일본대지진과 같은 초대형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최근의 현상이 또 다른 대규모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갈수록 지진의 강도가 커지는 모양새다. AFP통신은 16일 에카도르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먼저 일어났으며 그 11분 뒤에 7.8 강진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과학자들은 올해 초부터 남아시아와 태

평양 등 지역의 지진 발생 횟수가 평년을 웃도는 등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찾아진 지진이 더 강력한 초대형 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시코쿠(西國) 남쪽 해에서 서부터 태평양에 접한 시즈오카(靜岡) 현 앞바다까지 약 750km에 걸쳐 있는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9.1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지진은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약 70% 선으로 추산되며 수도권에서 규슈(九州)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연안을 따라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약 200~300년 주기로 한 번씩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간토(關東) 대지진이 압박했다는 경계도 꾸준히 제기된다. /연합뉴스

여수 경도 매입 추진 중국 평강도가촌 계획 보니

"중국인 별장·의료시설·면세점 사업 추진 후 1년내 분양할 것"

관광특구·영주권 취득 가능 사후평가 3조원도 매력적

중국 자본의 여수 경도 매입이 현실화 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차례 매각 협상이 있었지만 지나치게 큰 사업 규모가 장애물이 되어 무산된데다 정부 복합리조트 공모에서도 탈락하면서 '경도 처리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여수 경도 관광단지 2.16km²(66만평)을 최근 광양만 권경제자유구역 내에 편입하는 신청 서류를 산업자원통상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구역 내에 포함되면 외국 투자자가 1조5000억원을 투자할 경우 942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을 겨냥해 사전에 준비한 것이라는 양자문 전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이미 정부 복합리조트 공모에 투자자로 참여한 바 있는 중국 상해의 평강도가촌 등 기업 들을 잇따라 방문해 협의에 나서면서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광주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평강도가촌은 기존 시설을 3600억원에 매입하는 등 1조2000억원에 대경도 전체를 사들여 4000억원을 투입해 신규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경도의 사후평가 자산 가치는 약 3조원으로, 관광특구 및 투자진흥구역 지정, 외국인 투자자 5년 이상 보유시 영주권 취득 가능 등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 평강도가촌의 판단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중국 기업에 투자만이 아니라 고용 창출, 향후 중국 관광객 유치 등 장기적인 비전 제시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용원 건설설계단과 신디그룹 등 중국기업들은

분양 대행 및 책임 시공에 나서고 사업 착수와 동시에 중국 현지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해 1년 내에 분양을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현지실사까지 벌인 전남개발공사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투자 후 분양 수익만 챙기고 철수하거나 투자중도에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이 그 이유다. 또 평가도가촌 등이 복합리조트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5000만 달러 선반, 2억 달러 예치 등 정부의 공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공모에 탈락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기간이지만, 1조2000억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시설을 얼마에 매각할 것인지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평강도가촌 측은 3600억원 정도로 평가했지만, 전남개발공사가 2016년까지 경도골프장 조성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4095억원(공사채 포함)이다. 이미 감사원이 지적한대로 골프회원권 분양 1399억원, 골프빌라(300호) 분양 1908억원, 기업연수원 및 테마파크 부지 등 토지(27만4790m²) 매각 608억원 등을 통해 3915억원을 조달하려 했으나 모두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골프장은 대중제로 바뀌었고, 골프빌라는 부지만 조성된 상태며, 기업 연수원 및 테마파크 부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제 값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양자문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다른 중국 기업들도 (경도 매입)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 수익에 관심이 있거나 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없다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0@



최근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여수 경도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전남개발공사가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현지 실사를 벌이는 등 매각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여수 경도골프장. <광주일보 자료사진>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 PASTA/ PIZZA/ 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 클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oM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010-3598-7080/1899-3975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육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고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천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